

제8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8. 6. (목) 09:30 ~ 12:30
장 소	본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11명 (재적인원 11명 모두 참석)
주요내용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록 검토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선정방법 등)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록 확정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 인원수 : 총32명, 각 그룹별 9명씩 - 참여자 선정방법 ▸ 정책·도시관리 : 전주시의회 및 각 위원회 등 추천 후 추천 ▸ 도시계획 : 도내 대학 등 2~3배수 추천받아 참여의사 확인 후 추천 ▸ 지역경제 : 각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 ▸ 시 민 : 협회 추천, 홈페이지 공모 후 추천, 무작위 추출 방식 ○ 차기 회의 일정 - 2020. 8. 19.(수) 09:30 ~

제8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총 재적인원은 11명이며, 금일 모두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제8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4차, 5차 회의록은 별도의 의견이 없으셨으므로 확정된 것으로 하고, 6차 회의록은 확인하신 후 의견을 별도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선 담당 부서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먼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시민 의견수렴 칸을 만들어 냈고, 거기에서 저번에 회의 시 10개 정도 의견이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3개 정도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핵심적인 의견은 조속히 개발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 자광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예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용역 관련해서는요?
전주시 관계자	- 공론화 용역은 오늘까지 입찰공고가 마감되고 내일 제안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 들어온 건이 한 군데 있었는데 정확히 제안서가 접수될지 그게 관건입니다. - 만약 이게 1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군데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제대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은 총 37명이 신청하여 자격 미달인 분을 제외하고 선정 인원 7명의 3배수인 2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저기 평가위원회에 도시계획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평가위원이었다고 해서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 두 가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없습니다. -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참여자, 의제 범위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 ○ ○)

#.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진행절차, 논의 범위 등 안건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일단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 도시관리 그룹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예결에 계신 3인은 참여 의사를 물어본 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구요. - 그리고 거버넌스 그룹은 추천받을 위원회를 결정을 하고, 의회는 전주시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금일은 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얘기토록 하고, 먼저 거버넌스에서 추천받을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로 되어있는데 ○○○ 위원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위원	- 지난번에 어떤 단체를 거버넌스 조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전주 다울마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다울마당도 거버넌스 조직의 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추천했던 곳 들은 별도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요. 대표가 민간인이고, 물론 시의 예산이라던지 지원이라던지 협업은 가능하지만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상근자가 있는 조직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 이후로 제가 그 조건에 맞는 조직을 좀 더 찾아봤는데 제 한도 내에서는 지금 전주시 ○○○○○○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상근자가 3명 이고요, 시의 예산이 있긴 합니다만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하천계획이라는게 단순히 하천 생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폭넓게 있습니다. - 그다음 한번 판단해주실 것이 다울마당이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다울마당을 아까 말한 추천을 요청할 거버넌스로 보는 게 맞을지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울마당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위원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왜 다울마당을 썼냐 라던지?
○○○ 위원	- 현재 다울마당이 22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제와 관련된 다울마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 의뢰하는 건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천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절차를 거치면 되긴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 위원장은 민간 공동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민간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먼저 기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첫 번째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상근자의 유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일들을 추진하고 만들어내고 회의 안건을 붙이거나 이런 건데 대부분의 다울마당은 어찌보면 간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을 올리는 위원회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 그러니까 다울마당은 쉽게 말하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인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에서 예산을 내지만 민간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독자적인 사업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이 거버넌스 존재하고 조금 달라서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건지 먼저 정해야 될 거 같아요. 다울마당까지 포함을 시킬건지, 아니면 다울마당을 제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거버넌스 조직이 3개 정도가 있어서 3명을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인데, 저희가 추천의뢰를 공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위원장님이 오시든 이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그 과정이 가능한 조직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다음에 거버넌스 조직은 위원장과 운영위원들과 행정의 일부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고 짜는 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상은 다울마당 위원회 보다는 저희가 추천한 거버넌스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다울마당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 위원	- 처음에 각종 위원회나 거버넌스 조직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전데요. 기본취지가 뭐였냐면 그래도 시정에 참여하고 두루 거시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개념이 애매모호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조직 또는 다울마당이라는 것보다는 다울마당이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기준으로 출발을 삼아야지 조직의 성격을 통해 이야기 하다보니 기준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NGO라고 볼 때 너무 많으니까 기준을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추천 가능한 사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일단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NGO를 추천해서 그 조직에다가 참여자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추천받았으면 하는 NGO들을 나열해서 논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	- ○○○ 위원님, 역대 그룹핑화 된 NGO에 추천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좀 넘치면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될까요?
○○○ 위원	- 지금 하는 것은 정책·도시관리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뭔가 정책 결정 단위를 여기서 뽑자고 한 건데, 일반 시민 단체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비중을 높인 것이잖아요. -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는 전주시의 조경이라던지 생태 도시와 관련된 조경계획이라던지 실천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조직이고 상근자가 8명이 넘어가니까요, 대부분 시민단체 쪽에서 협치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 지난번에 추천한 데가 어디죠?
○○○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으로 놓고 보면 ‘○○○○○○○○○○○○○○’라고 하는 조직이고 10년 이상 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추천하신 데가 ‘○○○○’, ‘○○○○○○○○○○○○○○’, ‘○○○○○○○○○○○○○○’ 이렇게 되는데요. 느낌에 ○○, ○○○○ 이렇게 하니까 자칫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 그러면 몇 개 더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	- 아까 말한 상근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 있거든요. 주거복지 문제는 사실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문제라던지 아니면 도시재생이라던지에 대해서 하는 곳인데요.
위원장	- ‘○○○○○○○○’ 그리고 또?
○○○ 위원	- 교통 파트쪽에 ‘○○○○○○○○○○○○○○’에서 한 명을 추천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요, 몇 개 더 추천해봐 주시죠. - ‘○○○○’, ‘○○○○○○○○○○○○○○’, ‘○○○○○○○○○○○○○○○○’, ‘○○○○○○’, ‘○○○○○○○○○○○○’ -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NGO가 없을까요? 거버넌스의 NGO 그룹 중에..
○○○ 위원	- 사회적기업은 상근자가 없나요?
○○○ 위원	- 네, 거기는 아마 상근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라고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 큰 틀에서는 정책적 측면도 포함된다고 보니까요.
위원장	- 그러면 논의된 것 중에 ‘○○○○○’, ‘○○○○○○○○○○○○○○○○’, ‘○○○○○○○○○○○○○○○○’, ‘○○○○○○○○○○○○○○○○’, ‘○○○○○○○○○○○○○○○○’, ‘○○○○○○○○○○○○○○○○’, ‘○○○○○○○○○○○○○○○○’ 이렇게 7개입니다.
○○○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 그룹과 시민 그룹과 구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NGO라는 명칭이 두 군데 동시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 정책 그룹에서는 원래 시작했던 대로 민관협치 조직들에서 찾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굳이 NGO가 아니라 민관협치를 통해서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나 위원회나 이런 데서 협의체나 찾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 특히 시민단체, NGO부터 4번째 그룹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민관협치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 위원	- 제가 하나만 정리하면 ‘○○○○○○○○○○○○○○’는 지속과 발전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대한방직 공문화 이 문제도 저기 안에서 논의했었고, 종합경기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저 안에 논의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서 추천을 받는 거는 이견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는 너무 행정하고 밀접하게 일하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위원	- ‘○○○○○’는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다 받습니다.
○○○ 위원	- ‘○○○○’도 예산은 시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 그다음 또 민관협치 중에 있을까요?

○○○ 위원	- 지속협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추천을 받는 것인지
위원장	- 협의회에다가 하는 거죠.
○○○ 위원	- 사무처장이 올 수도 있고, 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 전문가를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희가 4개 그룹을 나눈 것은 제가 전주에 거버넌스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4개로 역할 그룹을 나눈 것 자체가 실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시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NGO나 NPO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짜 어떤 목적성이 아니라 순수한 시민으로 단체 등의 구성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조직이 시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물론 지금 현재 ‘○○○○○○○○’에서 정책이나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을 하시는 분을 추천을 해줘라, 그분들이 직접 들어오는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하고 그쪽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일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1군이나 2군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한 그룹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러한 시민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나 그런 거버넌스 보다는 순수하게 그 목적성에 맞게 정말 행정이나 도시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1번 항목을 구분한 게 실은 이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을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전문 의견을 내면서 어떤 개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그룹이 필요하더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물론 그게 시민단체에서도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민단체들도 교수님들도 활동하시고 환경가 교수님들도 계시고 정말 전문성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딱 어느 그룹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는 분이 구성이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 이러면 “시민들의 활동단체 아니야? 왜 밑에도 시민이고 위에도 시민이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안될 여지가 있을거 같아요. -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명확히 짚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래 처음은 정책결정 단위가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이라던지 저는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거버넌스는 시정연구원이나 정책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는게 연구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큰 정책이나 결정단위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정책 그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오시든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하나 해주시라고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젊은 박사들이 좀 있는데 문화관광이든 뭐든 하는 거지만 행정이라고 해서 뺏지만 계획을 기본구상을 다 연구원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저는 거버넌스가 좀 그러면 아까 말한 법정 위원회에서 결정단위가 들어가게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면 어디까지나 거버넌스가..
○○○ 위원	- 시나리오워크숍은 일반시민이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공갈등 사회갈등 할때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정책을 추진하는 당사자도 이해관계자거든요. 예를 들어 전주시에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도요 이해관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해관계자와 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시정연구원에서 박사들이 들어오면 그건 시 입장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돼? 공론화는 시와 무관하게 하는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실은 정말 그 주체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공론화가 있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공론화라고 한다면 시에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시정연구원에서 오시면 안되는 거죠. 특별히 그분들을 배려해서 오시면,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들까지 조율해서 안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정연구원이거나 공무원분들도 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거죠.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정책이나 도시관리 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쪽에서 추천을 해서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민간단체들은 아래 시민으로 넘기고 이 거버넌스에는 그냥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 환경위원회가 됐든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보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민간단체들은 시민쪽으로 넘기고 거버넌스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중에 우리가 공문을 보낼 데를 찾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왜 거버넌스가 들어갔냐면 정책 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거버넌스 조직 안에도 자문기구가 있고 심의 기구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가치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거버넌스 조직에 있다는 거죠. 그게 민간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뭉뚱그려서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전주시 위원회 중에서 자문위원회 빼고 실질적인 정책 의사결정하는 심의기구중에서 추천을 받는 걸로 하면 정책분야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범위가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	- 원래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아마 조금 우려했던게 시가 이해당사자 일 경우에 결국은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저게 거버넌스 형태로 바뀌었던거 같아요.
위원장	- 그러면 한바퀴 돌았지만 정신차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 위원님에 얘기하신 전주시 위원중에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 중에 민간 위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그것도 ‘민간’자를 빼고요, ‘추천하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일단 ‘추천하는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전주시에 자문이 아닌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한번 했었죠?
○○○ 위원	- 이게 원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게 집행부와 의회,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구성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다음에 나온 게 현직들은 외부적으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빼기로 하니까, 전직을 찾자 이렇게 갔다가 전직 중에서도 찾기가 용이하지 않고 비판의 소지가 있고 이러니 민관협치 거버넌스로 가자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면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어요.
○○○ 위원	-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 심의의결기구에서 한사람을 추천받는다고 하면 자기 결정 자체를 자기가 부정하거나 또는 그걸 밀고 가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굉장한 빌미가 될 수 있을거 같아요. 이건 계속 대화하면 사실상 그거에 대한 할 얘기가 없을 수 있어요. 공론화라는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시가 하나의 당사자인데 시에서 어떤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그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또 다시 결정을 한다? 그것은 사실은 이것과의 상충이죠.
위원장	- 위원회를 빼자? 그 말씀이신가요?
○○○ 위원	- 의결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서는 안된다고 봐요.
○○○ 위원	- 시나리오기 때문에
○○○ 위원	-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를 그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 인거예요
○○○ 위원	- 그러면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냥 공무원 4명, 의회 2명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 위원	- 아니면 그냥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정하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만 나중에 최종의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 그렇죠
○○○ 위원	- 그니까 거기만 빼고 나머지 위원회나 이런데는 괜찮지 않나요?

○○○ 위원	-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관계가 있죠. 상업용지로 되는데 그중에 어떤 지역으로 갈거나, 일부만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이나 그 결정은 전주시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로 갈거나의 문제는 도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 그런데 논란의 소지를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빼야된다고 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똑같이 빼야됩니다.
○○○ 위원	-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는게 아무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요.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해서 전주시가 가지고 오는 공원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알게 모르게 제가 고려하면서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 위원	- 제가 보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 빼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추천 받으면 됩니다.
○○○ 위원	- 그런데 고민해야 될게, 물론 저도 위원회 심의의결하고 정책결정 일정부분 반영하거나 하는데 어쨌든 아예 관여하지 않는거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겠는데 밑에 전문가 그룹하고 혼용이 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위원들이 상당부분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그룹들과 유사한 풀에 있거나 한 풀에 있으면 중복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을 뽑으면 되죠. 이걸 우선으로 결정하자는 얘기죠.
○○○ 위원	-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씨나 사람으로 놓고 보면 실제 시나리오워크숍에 들어가가지고 토론하고 전체 시나리오 쓰는데 있어서는 그럼 사람이 딱 적합한 사람을 뽑은거예요. 아니면 그냥 획기적으로 전주시가 추천하는 거버넌스 참여 위원 중에 3명 이렇게 해버리세요.
○○○ 위원	- 차라리 그게 더 명확할 거 같아요.
위원장	- 추천할 수 있을까요? 추천 못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 들어오시고 나머지 공무원 외 부족한 숫자는 전주시 추천, 이렇게 서로 섞게요. 정책 그룹 중에
위원장	- 이게 또 돌아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 결정된 데에서 몇 개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회를 뽑아서 그 위원회 위원장한테 추천토록 부탁하죠. - 자 그럼 쪽 한번 후보군을 한번 보시죠 - 경관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생태도시위원회,,,

○○○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변경을 변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심의를 하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그 사람들이 만든 지구단위계획 안, 택지, 용적률, 높이, 형태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심의기구로 그다음 단계 심의기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또 주변에 교통량 수용에 대해서 가로 폭을 얼마나 할지 도로를 확장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결정을 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다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3개 위원회를 넣죠. 그게 핵심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메인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생태도시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이게 메인이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각각 1명을 뽑으면 겹칠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택한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추천해달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경관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생태도시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이정도면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위원	- 3명을 뽑기로 했으면 3개만 정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 4개에서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추천 받은 그대로 되는거니까요.
○○○ 위원	- 4개 위원회에서 받으면 한명을 빼야 되잖아요.
○○○ 위원	- 연관이 조금 적은 생태도시위원회를 빼시는게 어떨까요?
위원장	- 생태도시위원회를 빼죠. - 경관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이 중에서 추천받아서 세 분으로 하는 걸로 하죠.
○○○ 위원	-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회에 얘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던 이유는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받을거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 간사는 시가 담당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사실은 시가 추천하는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몇가지 한두가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정책결정 과정이니까 아까 말한대로 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그냥 추천만 받으면 되는 건데,,,
위원장	- 좋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데 아마 위원장이 부시장일거라서 민간인으로 추천을 해달라던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달아야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 위원	- 그냥 추천이 나올거 같습니다. 조항을 다는 순간 복잡해져요.
위원장	- 그러면 경관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시에 부담이 되겠지만 위원장 앞으로 한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위원장이 상의해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좀 달라집니다. 부위원장은 다 민간이 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라도 이걸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는 못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 그러면 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각 위원회로 한 명 추천해달라고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 분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쪽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 前○○○○○○○○을 ○○○○ 행정 쪽으로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견 한번 주시죠.
○○○ 위원	-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기술직 출신이라 이것은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런데 전주시에 공무원 중에 이걸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 위원	- ○○○○ 국장님은 기술직이긴 한데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특별하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 前 전주시 ○○○○○○○을 일단 써놓고요. - 그다음에 기획쪽에는 누구 없을까요? 前 ○○○○ 중에 한사람으로
○○○ 위원	- ○○○ 前 ○○○○○○○○○을 추천합니다.
○○○ 위원	- ○○○ 前 ○○○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의사 타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 위원	- 지난번에 ○○○으로 퇴직하신 ○○○ 前 ○○○님도 추천합니다. ○○○○○○○도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 네 좋습니다. 또 여성분은 안계실까요?
○○○ 위원	- ○○○ 前 ○○○○○도 있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저 다섯분 중에 전화를 하셔서 참석하신다는 분으로 결정하고 다 하시겠다고 하실 경우에 저희가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왕이면 한 두분 더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직이래도 조금 마음이 가벼운 분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그러면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저 다섯분하고 한 두분 더 추천해서 시에다 알려주셔서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참여자가 많을 경우 저희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그냥 생각난건데요. 전주시 노조위원장은 어떤가 싶어서요. 노조는 6급이하이니까 정치적 부담은 없을거 같거든요.

위원장	- 자 전주시 노조위원장 의견 한번 주세요. 전 현직 상관없이
○○○ 위원	- 그분이 정책이나 도시관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 위원	-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데 그중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	- 어쨌든 노조는 대표성이 있으니까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나리오 의제를 나중에 이야기를 할건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정보성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 대한방직 부지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 굳이 노조위원장을 넣을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할 때 고려 한번 해봐주시는 거로 하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 2번 도시계획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 마지막으로, ○○○ 前 ○○○○○○○○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 前 ○○○○○○○○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도시계획 그룹은 각 위원 추천해서 추천하기로 했죠?
○○○ 위원	- 제가 먼저 추천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 ○○대학교 교수, ○○○ ○○대학교 교수, ○○○ 교수 저는 세 사람 추천합니다. - 그다음 교통에 ○○○ ○○대학교 교수입니다.
○○○ 위원	-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성별 안배를 해야할거 같아요. 남자분들만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세대 대표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 부장이 아마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 여성이기도 하고 도시계획하고 재생쪽이니까 저는 ○○○ 씨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교통은 현직 경찰관이 들어가도 되나요?
○○○ 위원	- 현 경찰관 보다도 교통전문분야가 있어요. ○○○○○○○○이라던지
○○○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풀을 많이 뽑은 이유는 실제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 그래서 이 풀 명단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 추천 요청을 해서 분야별로 예비뽑기를 하던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위원	- 저번에 요청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공문 행위로 하기로 안했던가요?
○○○ 위원	- 아까 ○○○ 위원 말씀처럼 저기 이름을 적지말고 도시계획만 남겨 놓고, 교통 남겨놓고 연락해서 랜덤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위원	- 저기 교통 쪽에 추천합니다. ○○○ ○○○○○○ ○○님입니다. - 또 한분으로는 ○○○ ○○○○○○ ○○님입니다. 여성분입니다. 일단 교통쪽에 두 사람을 더 추천합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쪽에 ○○○ ○○대 교수님 여성분 추천합니다. - 환경쪽에는 ○○○ 위원님이 잘 아실거 같고, 조경/경관쪽에 추천하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고 다른분들이 추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	- ○○○씨나 ○○○씨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넣어야 되요?
○○○ 위원	- ○○○씨는 도시계획 전문가고요. ○○○씨는 학위를 건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환경 쪽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이기도 한 ○○○ ○○○○○○○○ 여성분입니다.
○○○ 위원	- 어쨌든 저기는 도시계획으로 건축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기보다는,,
○○○ 위원	- 아니면 ○○대 ○○○ 교수님, ○○○ 교수는 환경 쪽에서도 순수 환경입니다. 토목환경
○○○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환경공학 쪽으로 갈 건지, 자연생태 쪽에 있는 분을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평가위원으로 할 것인지
○○○ 위원	- ○○ ○○○○○○도 참여 가능할까요?
○○○ 위원	- 한 분은 위원으로 되어있고요.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 ○○○○○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씨는 도시혁신센터에 워크숍 오셔서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 3번 정도면 잘 부탁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 ○○○인 ○○○ ○○가 들어와야 되나요?
○○○ 위원	- 제가 지역경제까지 염두해두고 ○○○○○○ ○○ 자격으로 ○○○ ○○○ 대표가 들어간거고요. ○○○○○에다가 추천요청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위원	- 건축은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문제인거 같아요.
○○○ 위원	- 건축은 조금 뺐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조경/경관쪽에 한번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 교수님이라 ○○○ 교수님이 다울마당에 있는데 이분들이 경관 생태 이런 쪽이신데요
○○○ 위원	- ○○○ 교수는 조경입니다. ○○○ 교수도 경관보다 조경쪽입니다.
○○○ 위원	- 그러면 경관은 ○○○ 교수님
○○○ 위원	- ○○○ 교수님 경관입니다. 그다음에...

○○○ 위원	- 저기 경관심의위원회에 소집되신 분이 많은데 거기서 추천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	- 그렇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추천받으면 됩니다.
○○○ 위원	- 위원회에 보면요, 그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으로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전혀 경관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분야에 추천을 의뢰하는 인적풀에 특성이 전문가다라고 한정을 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조경전문가, 경관전문가를 추천해주세요’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주시 관계자	- 이미 도시/정책쪽에서 경관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서,,,
○○○ 위원	- 부동산 쪽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 추천하나 해주시죠.
○○○ 위원	- 저는 ○○○ 교수님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교통에 한 분 더 추천해도 됩니까? ○○○ 前 ○○○○○ ○○○○ 님이셨던 분입니다.
○○○ 위원	- 부동산쪽에 ○○○ 교수는 어때요?
○○○ 위원	- ○○○ 교수는 부동산 쪽은 아니고 도시계획 쪽입니다.
○○○ 위원	- ○○○씨는 도시계획 쪽인가요?
○○○ 위원	- 네 도시계획 쪽입니다.
○○○ 위원	- ○○○, ○○○ 이 두 분은 심사 평가위원 후보로 들어가 계신 분 입니다. 평가하게 되면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는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씨가 어디 한군데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 위원	- ○○○○○ ○○요? 그분 말씀하시나요?
○○○ 위원	- 옛날 시정연구원에 있지 않으셨나요?
○○○ 위원	- 네 맞습니다.
○○○ 위원	- ○○○ 박사도 박사죠? 건축쪽
○○○ 위원	- 의사결정 ○○○○이라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 위원	- ○○○씨는 조경/경관 쪽에 추가해도 되구요.
○○○ 위원	- 저도 그쪽에, 정확한 전공은 아니어도 알겠죠? 그쪽을?
○○○ 위원	- 어쨌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 위원	- 부동산 전문가는 교수님들만 들어가야나요?
○○○ 위원	-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 위원	- ○○○○○○ ○○는 아닌가요?
○○○ 위원	- ○○대 부동산 학과에 누구 없을까요? 감정평가사 분들중에 없으세요?
○○○ 위원	-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 분들은 자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별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명으로 저기만 들어가기도 애매하잖아요.
○○○ 위원	- 부동산전문가가 저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저는 애매하네요. 감이 안잡혀요. 다른 분들은 조경, 환경, 교통 이렇게 매칭이 되겠구나 하는데 부동산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	- 주택과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되요. 여기가 지금 3000세대 아파트 계획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 위원	- 건축 관련 실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 위원	- 저기 써놓으신 것들 대부분 ○○○ 선생님하고 ○○○ 교수님이 다 집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아까 말한대로 주택 공급정책이라던지
○○○ 위원	- 누구누구요?
○○○ 위원	- ○○○ 선생님하고 ○○○ 교수님이라고 ○○대 ○○○○○○○, 거기에 ○○○○○○○ ○○○○○도 하고 계십니다.
○○○ 위원	- 네 그럼 일단 추가하시죠.
○○○ 위원	- 제목을 부동산/주택 분야 이렇게 넣는게 좋겠어요.
○○○ 위원	- 네 부동산/주택이 맞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경관은 지금 전주시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지 부위원장이신 심상덕 교수님이 조정하시면서 이 분이 도시공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 위원	- 네 그럼 ○○○ 교수님 추가하세요. - 여기 ○○○○대에 ○○○ 교수님도 여자분인데 그분도 건축, 토목, 조경쪽이기 때문에 조경/경관쪽에 넣어도 됩니다.
위원장	-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쪽에는 몇 분입니까? - ○○○ 교수(○○대), ○○○ 교수(○○대), ○○○ 교수(○○대), ○

	○○ 대표(○○○○○○○○○○), ○○○ 이사(○○○○) 다섯분입니다. - 다음 교통은요? - ○○○ 교수(○○대), ○○○ 부장(○○○○○○○○), ○○○(○○○○○○○○), ○○○(○○○○○○○○○○) 네 분입니다. - 그 다음 환경은요? - ○○○ 교수(○○대), ○○○ (○○○○○○○○○○), ○○○ 교수(○○대), ○○○ 교수(○○대), ○○○(○○○○○○○○○○) 다섯 분입니다. - 그 다음 부동산/주택에 - ○○○, ○○○ 교수(○○대), ○○○(○○) 세 명입니다. - 또 추가적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회의 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 후 추천하기로 했으니, 관련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일단, 참여 의사를 여쭙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도시계획과 교통은 맡아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으며, 조경/경관은 ○○○ 위원님이, 부동산/주택, 환경은 ○○○ 위원님이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 중에 추천 또는 결정하겠습니다. - 전체 분야별로 2~3배수 추천 또는 추천을 받아서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참여하겠다는 분들 중에 배정된 인원만큼 추천한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난번 소상인은 기관에서 추천받은 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 소상인은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받을 것인지 ○○○ 위원님이 윤을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 지난번에 ○○○○○○○○○○○ ○○○○○○○○님은 로드숍 상가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 위원	- 네, 운영하시는 분 맞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라고 추천기관으로 하죠. - 소상인 세 분인데 또 어디 있을까요?
○○○ 위원	- 전통시장과 슈퍼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습니다.
위원장	- 아니면 ○○○○○○○○○○○에서 두 분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 위원	- ○○○○○○○○○가 따로 있지 않나요?
○○○ 위원	- ○○○○○○○○○가 법적기구가 있긴 합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에 2인은 많은가요?
○○○ 위원	- 1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렇습니까? 그러면 ○○○○○○○○○○○ 1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한 분이면 그쪽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1명은 아마 ○○○○님이 올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위원장	- ○○○○○도 ○○○○○○○ 1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가 회원이 있는데, 한 두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는 ○○이든 ○○님이든 ○○○○○ 전체 대상으로 추천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는 규모가 커요.
○○○ 위원	- 저는 ○○○○○는 상징적인 한 명이고,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천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소상공인이 단체가 너무 많은데, 대표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부분하고요, ○○○○○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3명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 플러스 지역경제 등과 같이 풀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 상공계열로 가보죠.
○○○ 위원	- 소상공인에 ○○○○○○○○○를 하나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 대부분 소규모 대표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 ○○○○○○○○○○○, 좋습니다.
○○○ 위원	- 상공계가 ○○○○ 등을 말한 것 아니었나요?
○○○ 위원	- ○○○○ ○○○○○○는 어떻습니까?
○○○ 위원	- 딱 두 집단이거든요. 소상공인 할 때, ○○○○○○○○와 ○○○○○○○○ 딱 2개인데, 대한방직부지에 상업시설에 슈퍼나 전통시장이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2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말씀하실 것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자광같은 경우는 지하에 로드숍 상가를 한다고 하니, 전통시장등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전통시장과는 완전히 고객층이 틀립니다. - 그래서 로드숍에 있는 분들만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 위원	- 교수님, 너무 미세분석을 하면 기준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 제가 보기에는 전통상가는 시장분할이 돼서 ○○○○○○ 정도에 들어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 그럼 ○○○○○○○○ 좀 적어봐 주세요.
○○○ 위원	- ○○○○○○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이 들어 왔을 때, 대항력을 가진 반대 지점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 저는 대한방직 지하에 상가들이 입점한다고 볼 때, 오히려 마트보다는 전통시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예를 들어, 처음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할 때도 제일 반대했던 그룹 중 하나가 ○○○○○○○○였습니다. - 왜냐하면, 대규모 자본이 잠식함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전통시장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 마트는 어느 한 분야로 느껴지고, 전통시장은 종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낱알스 차이도 있어서 ○○○○○○○○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보니 우리랑 별로 상관없네라고 하면 나중에 수용성이 높아지겠죠.
위원장	- ○○○○○○○○(로드숍),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적어주세요. ○○○○○○○○는 되었고, 상공계로 넘어가죠.
○○○ 위원	- 상공계에 건설이 있네요.
위원장	- 건설, 팬츠를 것 같습니다. - ○○○○○○○○ ○○○○○가 있습니다.
○○○ 위원	- 경제 분야도 추천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경제 분야에는 실무에 계신 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 유통 분야 전문가분들이 이 역할들을 대변하거나 좀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경제 쪽이나 유통통상학과 하시는 분들을 생각했었습니다.
○○○ 위원	- 상공계·지역경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 위원	- 모두 지역경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 위원	- 상공계면 실무 쪽 같습니다.
○○○ 위원	- 상공회의소가 상공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상공계보다는 지역경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지역경제 그룹에 소그룹으로 지역경제가 들어가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 저희가 상공계 전문가를 추천하면 되니까, 이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추천을 해주십시오.
○○○ 위원	- 상공계에 ○○○ 교수님은 어떠세요?
○○○ 위원	- 괜찮습니다.
위원장	- 지역경제 그룹에 단체로 되어 있어서 기관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교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 위원	- 전문가 그룹을 좀 빼야 되겠네요.

○○○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과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야할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대화를 하면, 물론 FT가 역할을 하겠지만 교수님이 모두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교수님들은 전문가 부분으로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윗부분 전문가 그룹에 경제쪽이 없습니다.
위원장	- 나중에 바꾸더라도, 지역경제 쪽은 순수하게 실물경제에 계신 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 상공계를 유통 또는 건설 등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 상공계 하지 말고, 유통 및 건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 그래서 건설은 ○○○○에 의뢰하고, 유통 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 위원	- ○○○ 교수하고 ○○○교수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경제단체 기관이니까 단체기관명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기관이 없습니다.
○○○ 위원	- ○○○ ○○○○○○○○는 어떻습니까?
○○○ 위원	- 그건 제조업 중심 기업이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죄송한데, ○○○○○○○○는 상인보다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 위원	- 네, ○○○○○○○○도 제조업 중심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를 유통·건설 쪽으로 내릴까요? - 그럼 ○○○○○○○○를 내려서 건설쪽에 한 분 추천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를 유통·건설쪽으로 내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위원 모두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유통·건설쪽에 2명이 되고, 소상공인에 다시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 위원	- ○○○○○○○○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도 ○○○○○○○○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위원	- 큰 틀에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 하죠.
위원장	- 그럼 ○○○○○○○○ 이렇게 됩니까?
○○○ 위원	- ○○○○○○○○○일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으로 하겠습니다. - 그다음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 이 부분은 딱히 문화관광을 호텔업체를 부를 수도 없고, 숙박업소거나 대부분 한옥마을 쪽인데, 한옥마을도 숙박하고 상가 쪽이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아까 실물경제가 참여하시면.. - 자광이 한옥마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옥마을 사람 부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저는 문화관광 이 부분들은 관광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립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 원래는 다양한 그룹들이 결정하는건데, 저희가 전문가분야에 문화 관광을 넣지 못했거든요. - 제가 보기에 ○○○○○○○○○ ○○○○이라고 한옥마을 쪽 이해 관계라든지, 이쪽 관광 방향을 잡아주신 분이 ○○○교수고, 이분이 초창기 때, 랜드마크 때문에 토론회를 많이 나오셨습니다. - 적합한 직함이 없나 보니까, ○○○○○○○ ○○○○ ○○○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 일단 ○○○○○○○ ○○○○으로 포함해 놓으시죠.
○○○ 위원	- 그 외에 ○○○교수님이 호텔관광과 교수로 되어있으시고요. - 그다음에 ○○○씨는 한옥마을에 거주하면서 지역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위원	- ○○○씨는 어디서 추천을 받아야 할까요?
○○○ 위원	- 한옥마을의 협의회가 있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 ○○○○○○○ ○○○○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 또 한 단체를 추천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저기에 위에 ○○○○, ○○○○○, ○○○○ 등, 다 실물경제에 포함되고 계신 분들인데 갑자기 문화관광에서 학계에 계신 분이 들어오게 되면 타이틀만 이쪽으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나 ○○○○ 이런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관광 쪽에 단체가 없을까요?
○○○ 위원	- 협회가 있긴 한데, 관에서 위탁하는 사업만 하는 곳이라 복잡합니다.
○○○ 위원	-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을 종사하고 연구하는 분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 그래서 처음에는 실물에 참여하는 사람들 내지는 ○○○○○○○○에 추천을 요청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 위원	- 정리를 해보면, ○○○○○○○○○○○○○○○○○(한옥마을)이라고 하고, 한옥마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에 추천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다음에 ○○○○에도 추천을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특정하지 않는 한, ○○○○에서 자광쪽에 찬성하는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관광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어느 곳에서 추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상징성을 보면 ○○○○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 그러면 ○○○○(한옥마을), ○○○○○○○○ 이렇게 해서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쪽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만약 아울렛 연합모임이 있다면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이 그런 연합모임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시에 알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	- 하나의 방법은 아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로드숍이라고 하면 로드숍 2명으로 하고, ○○○○○○○○○○○○○○은 빼면 어떨까요?
○○○ 위원	- ○○○○ 하시는 분들 중에 ○○○○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위원	- ○○○○ +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위원	- ○○○○ 쪽에서 한 명을 추천받고, ○○○○○을 빼면 아마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이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만약에 ○○○○ 단체가 있다면 전주 ○○○○ 단체 한 명하고, ○○○○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위원	- 공식 등록되어 있나요?
○○○ 위원	- 안 되었을거예요.
○○○ 위원	- 그러면 번영회일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4번째 시민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민그룹에 인근지역 2명은 홈페이지에 공모하여 남녀로 구성하고, 시민&언론인 3분인데 저기에 언론인 한 분, 시민에 추천받을 단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앞서 1그룹에서 이야기했던 NGO, NPO 그룹 중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 언론단체는 밑으로 내려주세요. - 왜냐면, 홈페이지 공모 후 추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 언론단체는 ○○○○○○ 추천으로 적어주세요. - 그리고 시민단체 홈페이지 공모 추첨은 동의하십니까?
위원 모두	- 네, 동의합니다.
○○○ 위원	- 인근지역은 어디를 인근지역이라고 합니까?
○○○ 위원	- 대개 본건이 소지하고 있는 그 주변 동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인자 아래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인근 지역은 효자5동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대한방직소재지 해당 동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인근보다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인근지역이라 하지 말고, 옛 대한방직 소재 동, 그리고 소재 동 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 2명이라고 하기 보다는 남녀 각 1명이라고 표시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 그러면 가로 안에 남녀 각 1명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만약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 위원	- 저는 자광 관련 사람이 4명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여기서 추첨을 하는 것이니,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저는 접수 받은 모든 사람 중에 추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1차 심사 후에 추첨을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선착순 몇 명으로 하면 되죠.
위원장	- 선착순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지금 여기서 들어올 사람이 자광 쪽이지 않을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형식상 일반시민 중에 추첨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신청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입니다. - 신청서를 좀 까다롭게 하면, 진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아니면 간단한 요건이나 지원사유 정도로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만약에 공모가 우려스럽다면 이후에 공론화 진행을 위한 전문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추후 시민참여단 선정할 때에,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니 시기가 맞는다면, 리서치 업체에 무작위추출을 통해 효자동 소재지 및 비소재지 남녀 각 1명씩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우려했던 공모에 있던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이 4명이어서, 시민그룹 7명 중에 과반이 넘기 때문에 주민 4명에 의해 전체 의견이 휩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모방식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방식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저도 ○○○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업체에 맡겨서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모두	- 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전문수행 기관을 통한 무작위 추출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홈페이지 공모 후 추첨이죠?
위원 모두	- 네.
위원장	- 주민자치협의회는 ○○○○○○○○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다음은 언론분야 ○○○○○○ 추천입니다.
위원장	- 네, 언론분야는 ○○○○○○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시민사회단체 추천은 누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 위원	- 단체에서 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단체 자격요건을 시내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전주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전라북도 시민단체인데, 전주시 소재면 되는 거네요?
○○○ 위원	- 전주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 전라북도 시민단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위원	- 대부분 소재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전주시 소재(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라고 하겠습니까. - 1번 행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해서, 일단 참여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버넌스 3명은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 의회는 전주시 의회에서 추천받는 것으로 했고요. - 도시계획 그룹은 각각 맡아서 참여 여부를 확정해서 다음번 회의 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역경제 쪽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부동산 쪽으로서 지역경제 전문가로 가면 안 될까요? -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쪽에 전문가를 우리가 이야기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시던지요.
○○○ 위원	- 지금 이게 전문가 그룹인데 그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와야 무언가 언급이 된다고 봅니다.
○○○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열된 분들은 부동산주택 그러 더래도 이 도시계획그룹이라고 하는 전체 그룹 성격으로 보아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3그룹에 경제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 경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부동산경제 쪽은 아닙니다. - 그래서 그냥 도시계획그룹, 교통, 경관, 환경이라고 하는 저 측면에서 보면 이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경제 이런 쪽으로 누가 들어 와야 하냐고 하는 안입니다.
○○○ 위원	- 의견 하나 드리면요, 환경을 빼고요. - 왜냐하면, 조경이나 경관 계시는 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오히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부동산, 주택 부분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부동산 쪽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 ○○대학교 ○○○○○○○에 ○○○ ○○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 그분은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 위원	- 부동산 경제분야 쪽이십니다.
위원장	- 그러면 ○○○ ○○를 적어 놓겠습니다.
○○○ 위원	- 전문가 그룹에 유통전문가들을 넣자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일단은 후보군으로 유통하시는 분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저기에 유통, 경관, 환경, 유통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 유통도 도시계획에서 중요합니다.
○○○ 위원	- ○○○ 교수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 그럼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 그러면 ○○○ 위원님이 책임지고 조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경제그룹 이쪽은 이의 없으시죠? 소상공인 3명, 기관에서 추천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시민 그룹도 무작위 추천하고, 홈페이지 공모 추천하고, 언론단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 ○○○○○○○○에도 공문을 보내야죠.
○○○ 위원	- 저번에 이야기하기에는 처음에는 해당 동 ○○○○위원장님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위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에 추천을 받자고 한 것이었죠. 협의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정된 사항은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8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